

안동 능곡회 37주년 기념 및 회장단 이.취임식



권태형 신임 회장



권영창 대종회 회장

안동권씨 능곡회 37주년 기념 및 제37, 38대 회장 이.취임식이 6월 30일 오후 6시 30분 안동두리원웨딩홀 5층 벨리타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전국적으로 장마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행사장 안에는 흰장미 등 수십종의 각종 꽃들로 채워져 꽃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내빈을 권영택 상임부회장이 소개하였는데 권영창 대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부인 이성화씨, 권계동, 권기호 파종회장협의회 고문, 권재주 안동원로원 의장, 권주연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영성 초대 능곡회 회장, 권정창 대종회 제례위원장, 권오국 전 안동향교 전교,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용수 건국대 교수, 권기수 별장공과 회장, 권중근 시중공과 회장, 권순복 정조공과 회장, 권중덕 전 시중공과 회장, 권영택 전 정조공과 회장, 권기윤 안동시의원, 권오의 능우회장 외 능우회원, 안동농협조합 임직원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본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권승 기수가 '월영교' '동백꽃 어머니' 등 두 곡을 멋있게 노래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1부는 권영철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는 권오성 능곡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가에 대한 경례, 시조 묘소 망배, 능곡회원과 능우회원 간 상송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급한 공무로 축사를 먼저하고 자리를 떠난 권기창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능곡회는 활발한 활동으로 친족 간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 발전에도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며 "지금 안동은 경북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큰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권태형 신.구 두 회장은 능우회장과 권영호 사무국장에게 능우회원들에게 양말 두 켤레씩 전해 달라며 선물했다. 이어 권오성 회장은 권기현 전 능우회장에 감사패와 꽃다발을, 또 나이제한으로 능곡회원에서 능우

회원으로 넘어가는 권기락 회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우수회원 4명에게 공로패와 꽃다발을 각각 수여했다.

권오성 회장은 이임사에서 "회원님들의 무한한 사랑과 협조로 회장 직을 무사히 마치게 됨은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오늘 취임하는 권태형 회장은 현재 안동농협조합장으로 있으면서 회장 직을 승낙하여 주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2부 행사는 권우경 신임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무대 위에서 권오성 능곡회장 부부는 권태형 신임 능곡회장 부부에게 꽃다발을 전했으며 권철환 종친회장은 신.구 두 능곡회장에게 꽃다발을 각각 전하고 위로 격려했으며 안동농협 임직원도 권태형 회장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권오성 회장은 권태형 신임 회장에게 능곡회기를 인수인계하였다.

권태형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능곡회는 1986년 8월 8일 권영성 초대 회장과 회원 35명이 모여 창립하여 그동안 두 차례 걸쳐서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를 개최한 이후 내년 33회 안동권씨 전국 체육대회를 능곡회 주최로 안동에서 개최함에 따라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 2년 동안 권오성 회장이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취임사가 끝나자 권태형 신임회장은 지난 2년간 능곡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한 권오성 회장, 권영철 사무국장, 권영석 재무국장에게 감사패와 공로패, 꽃다발을 전하고 권영목 사진작가가 이를 3명에게 작품 사진 1점씩을 전했다.

권영창 대종회 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행사에 안동권씨 대종회 중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마치 대종회를 옮겨 놓은 것 같다"고 농담하고 "대종회는 찬조금, 성금, 홍보 판매대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동권씨 홍보를 많이 구두하여 1만부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운영이 잘될 것 같다"고 호소하고 "앞으로 경영은 철두철미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권철환 종친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능곡회장 이.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왔다"고 자랑하고 "능곡회는 매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의 춘, 추 향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안동권문의 전통가치와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과 전통문화 계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회원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소통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으로 능곡회 발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성 초대 능곡회장은 축사에서 "지금부터 37년 전 회원 35명으로 창립한 능곡회의 회원이 5배 성장하고 어른들의 격려 하에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영광이었으며 권문의 전국 청.장년회 체육대회를 최초로 만들고 춘추향사 때 제수 봉송을 능곡회가 맡아 일하고 있어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회고했다. 권오의 능우회장은 격려사에서 "능곡회는 권문의 자랑이자 보배"라며 "능곡회는 다른 어떤 단체와 차원이 다른 조직으로 전 회원이 송조이념과 애족사상이 투철하여 매년 시조 태사공 춘추향사 참여, 능동제사 관리, 고택음약회, 보학강좌 등 권문의 전통적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 부인 이성화씨는 축사에서 "많이 모인 안동 권씨 만 보면 가슴이 떨린다"고 농담한 뒤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될 때 안동 권씨가 많이 도와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하고 "능곡회 회장 이.취임식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권기현(동정공과, 경북도교육청 장학사), 권영기(북아공과, 농업), 권중현(호장공과, 안동농협공관장 중도매인), 권오훈(북아공과, 유명스카이 대표), 권기재(북아공과, (주)동양기술단 차장) 등 5명을 능곡회 신임회원으로 임회시키고 권태형, 권오성 두 능곡회장이 능곡회원들과 꽃다발, 배지를 수여했다. 이로써 현재 능곡회원은 모두 110명으로 늘어났다.

이어 능곡회를 이끌어 갈 제 38대 회장단 임원들을 소개하고 나서 기념촬영을, 또 능곡회원과 능우회원이 함께 모여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권태형 신임회장(56. 호장공과)은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을 졸업, 안동농협 지도 상무를 역임하고 지난 3월 8일 조합장 선거에서 안동농협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이날 권영창 대종회 회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세복 북아공과 회장 등 20여 명이 대형 화환과 난 화분을 보내와 축하하기도 했다.

권태형 신임회장은 폐회사를 선언하고 두리원 4층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뷔페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권태형 회장은 참석자 전원에게 티월 1장씩과 우산 1개씩을 선물로 나누어 주고 특히 능우회원들에게 별도로 양말 2켤레씩을 선물로 전달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부산종친회 전체 임원회의 개최



신임 임원 위촉장 수여 후 기념 촬영

부산종친회(회장 권영현)는 지난 7월 6일 저녁, 부산 연산동 옛골토성 음식점에서 제24대 집행부 구성에 따른 상건례를 겸한 전체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부산종친회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대의원 등 임원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국민 의례에 이어 태사공 시조님께 망배를 드리고, 상호 음례로 인사를 나눈 뒤, 송산(영현) 회장의 참석 인사 소개가 있었으며, 계속해서 새로 위촉(선임)된 임원 11명에 대하여 위촉(선임)장을 수여하였다.

송산(영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평소 우리 안동권문도 자랑하는 명문세가의 자부심과 긍지가 종친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원천이 되어 오늘날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다"며 "송계(길상) 고문을 비롯한 원로 어른들의 여러 치적과 지난 4년간 종친회에 헌신한 송암(성용) 직전 회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를 보내자"고 주문하자 박수 세례가 쏟아졌다. 이어전 경과보고에서는 "지난 제47

차 정기총회에 대한 결산 및 감사 인사"를 비롯하여 "대종회 권영창 회장 취임" 소식, 그리고 "종친회 자산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한 뒤 "새 임원으로 위촉된 종친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고, 다가오는 무더위에 축친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무리 인사를 하였다.

축사 및 격려사에서는 차례로 송암(성용) 명예회장은 지난 4년간의 성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새 집행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고, 원광(영호) 대종회 수석부회장은 대종회 상임위원회 소식 및 부산의 대종회 임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였으며, 송계(길상) 고문은 종친 간에 상대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진심으로 대하고, 종친 간 화합과 우애를 소중히 가꾸어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계속된 안건 토의에서 송산 회장은 제24대 임원 구성 결과를 비롯하여 제47차 정기총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종친 학생 진로지도 및 보학강좌 계획 등에 대한 토



권영현 부산종친회장

의를 진행하고, 강좌에 종친 자녀와 손자 손녀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임원회의를 마무리하였다. 회의 후에는 준비된 만찬을 나누면서 종친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권재영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은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37)



그러면서 조선조 초·중기에 군자와 소인 및 봉당(朋黨)정치, 그리고 왕안석에 대한 인물평가는 구범당(舊法黨)과 그 추종자들, 특히 이른바 북송오자(北宋五子: 周敦頤, 程顥, 程頤, 張載, 邵雍)나 이징(二程: 정호·정아)-양시(楊時)-나예장(羅豫章)-이몽(李侗)-주희(朱熹; 朱子)로 이어지는 도

학자(道學者; 성리학자)의 평가와 의양(依樣; 모방) 답습해 갔다. 조선조의 정주 성리학과 특히 주희에 대한 절대적인 수용과 존송 태도에서 출발한 근자·소인에 대한 논의에서 왕안석에 대한 평가의 변화와 이른바 '봉당론(朋黨論)'으로 이어졌다.

즉 그러한 모습은 대만과 미국 등에서 활동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의 책이 많이 읽혀진 문필가로 이름을 날린 임어당(林語堂권위당, 1895-1976)의 책(陳英姬 역, "송동파평전蘇東坡評傳", 지식산업사, 1990) 제8장에 '고집장이 재상(勳相公) 왕안석'을 서술하며 신법당을 당권파로 구범당을 반대파로 분류하며 139쪽에 도표까지 달고 있다. 조선 초기부터 경연(經筵)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로 주자학파였던 남송(南宋)의 진덕수(眞德秀, 1178-1235, 호는西山, 시호는文忠公)의 '대학연의大學衍義'의 왕안석에 대한 '소인' 평가를 채택하여 세종(世宗) 임금께서도 이에 같은 의견 '소인의 재주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였지만, 묵은 이색과 양촌 권근의 제자이자 성균관대사성, 예문관·지전전대제학을 역임하며 집현전 학사들을 길러낸 변계량(卞季良, 1369-1430, 호는春亭, 시호는文肅公)은 약간 다른 견해('전적인 소인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표시했다.

아무튼 북송 초기 당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서 범중엄(范仲淹, 989-1052년, 시호는文正公)은 왕안석의 신법의 처음인 청묘법이 시행되는 1068년에는 죽은 자가 이미 16년이나 지났다. 죽은 시신이 나타나 반대를 했을까? 그리고 범중엄은 왕안석과 같이 일찍 부친을 여의고 가난과 싸우고 죽을 고생을 하며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천재로서, 정성공부를 다하고 강한외적(遼·西夏)에 대항하여 외교와 전장에서 이른바 '출장임상(出將入相)'의 품모로서 재상이 된 인물로, 살았다면 오히려 왕안석을 적극 지지했을 것이라 사료된다. (權仁浩, 來庵 鄭仁弘 政治 哲學思想과 功業의 位相研究 -中國의 北宋 范仲淹, 越南의 黎朝 阮 侗을 비교하며-, "東洋哲學研究"제53집, 韓國東洋哲學研究會, 2008. 2. 참조)

그러나 한편 정말민초 근대 양계초(梁啓初량치차오, 1873-1929, 호는任公·飲水室主人)는 정주리학에서 벗어나 육왕심학(陸王心學; 육산학과 왕양명의 심학)과 서학(西學) 및 공자의 "춘추春秋"공양학(公羊學)을 익힌 그는 강유위(康

有爲, 1858-1927), 담사동(譚嗣同, 1865-1898) 등과 '변법 자강운동(1898년)'에 투신하였다. 중국(1949년 이후 대륙)과 일본, 미국의 학자들은 왕안석에 대해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적극적 혹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北京, 1984-1986 / 侯外廬 主編, "中國哲學思想綱", 北京, 1980 / 胡寄慈, "中國經濟思想史", 上海人民出版社, 1962 / 梁啓超 外, "中國哲學思想論集", 臺北, 民國68 / 東一夫, "王安石新法の研究", 東京 風間書房, 1970 / 미우라 쿠니오, 이승연 옮김,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책세상, 2005 / 제임스 류(James T. C. Liu; 劉子健), 이범학 역,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2. 참조)

한편 신법을 신도하고 추진하던 신종(神宗)마저 죽고(1085. 3월) 난 후 철종이 9세로 즉위하자 영종의 황후였던 태황태후 고씨가 수렴정청하며 신법당을 몰아내고 구범당의 원로 문언박(文彦博, 1006-1097)을 사도·태사로 삼았고 사마광(司馬光, 1019-1086.11)을 문하시랑으로 임명하여 신법을 차례차례 폐지하였다. 이런 와중에 왕안석도 1086.4월에 죽었다.

한편 이에 앞서 북송의 3대 황제 진종(眞宗, 997.3-1022.1 재위)인데 요(遼)나라와의 대결에서 당시 뛰어난 재상 구준(寇準, 961-1023)의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진종(황제)이 겁을 먹고 백성의 괴로움은 잊은 채 1005년 1월에 굴욕적인 강화인 '전연(澶淵)의 맹盟'이 이뤄졌다. (매년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來이 遼에게 바칠 것. 송의 진종은 '형', 요의 황제는 '아우', 성종의 모후 承天太后를 '숙모'로 칭하기로 하였다. 그 뒤 비단 10만 필과 은 10만냥을 추가하였고 '하사(昏贖)'가 '바친다는 것(贖納)'으로 변하였다. 이를 타개하고자 한 왕안석 新法 실시, 方臘의 반란이나 宋江의 梁山泊(水滸傳)무대)도 요와 西夏에 이어 금나라에게 엄청난 양의 강화 대가로 백성들을 가렴주구 하여 끝내 망국을 재촉함) 강화파였던 왕윤악이 오히려 주전파였던 구준을 모함해 도주사마로 좌천했다가 진종이 죽자 뇌주로 유배 보내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다.

북송 초기 당시 끊임없는 내우외환의 위기에서 범중엄이 활동했던 북송 시대의 중기는 인종(仁宗, 1022.2-1063.3; 재위)이 정치와 교육의 개혁을 이루고, 320년간의 송나라 전체 기간(북송; 960-1127년, 수도 開封 / 남송; 1127-1279년, 수도 臨安; 현재 杭州) 가운데, 가장 치세(治世)를 이룬 이른바 '경력慶曆의 치화'(인종의 42년간 연호는 10개. 그 가운데 1041년 11월에서 1048년까지의 연호가 '경력'이다) 시기에 해당한다. 범중엄은 그 경력개혁의 주체적 중심인물로 당 말오대 시대 혼란했던 정치사회와 학문교육을 혁신하여 송나라를 풍요로운 문화국가로 조성한 인물이다. 범중엄의 '경력혁신 운동'은 뒤이어 이뤄지는 왕안석의 '희명熙寧(신종의 연호로 1068-1077년 기간)변법變法', 즉, 신법 추진의 전주곡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부산등산회 유월 산행기



부산등산회(회장 권영인)는 지난 6월 24일 10시, 부산 남산동 지하철역에 회원 12명이 모여 유월 산행에 나섰다. 이 달은 부산 금정구 회동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걷도록 정해졌다. 이 길은 비교적 평탄하고 잘 다듬어져 걷기에 안성맞춤인 코스로 요즘 부산에서 뜨고 있는

갈매길 가운데 8코스 1구간으로 명품 길이다.

회원 일행이 선동 주차장을 지나 상현 마을로 들어서자 커다란 신선 캐릭터가 어서 오라 반기고, 어느새 초록에 물든 벗나무 가로수는 상쾌한 기운을 마구 쏟아낸다. 인근 부영산 전망대는 풍광 자랑에

바쁘건만 회원들은 아랑곳 않고 앞길만 재촉한다.

공기를 정화해 청량감을 높여 준다는 대숲을 지나 어여쁜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 생태 탐방로에 들어서자, 청동오리떼의 한가로운 자매질, 마른 갈대와 푸른 갈대다 어울려 엮어내는 갈잎의 군무, 울룩불룩 솟아 도열한 산봉우리 능선이 모두 한 폭의 살아 있는 풍경화다. 발 걸음을 위해 만들었다는 평지산 황톳길을 맨발로 걷다가 기념 촬영도 해 본다. 산들로 둘러싸인 회동 호수는 고요해 평화롭지만 한데 등산 회원들의 기분은 자꾸만 출렁대며 울라간다.

부산종친회 산하 등산회는 매일 마지막 토요일마다 10시에 모여 근교 산 등반과 둘레길 걷기 위주로 가끔씩 힘들지 않은 코스를 택하고 있으며, 안동권문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 동행하고 싶은 일족은 전화 051-804-8703 부산종친회로 문의하면 된다.

수필가 권재영 사무국장